

신선한 공기 도심에... '광양 도시바람길 숲' 본격 추진

광양읍권 2개소·중마동권 6개소 등 총 8개 대상지 산림 찬 공기 도심권 확산...기후변화 체계적 대응

광양시는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 열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1차년도 '광양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2023년 사업 대상지는 열환경 분석 결과와 시민들의 이용이 높은 지역을 선정했으며, 총 8개소로 광양읍권 2개소와 중마동권 6개소를 조성한다. 총사업비는 90억원이 투입된다.

광양읍권은 디딤·확산 숲과 연결 숲 각 1개소를 조성한다. 디딤·확산 숲은 전남도립미술관 주변으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위치적으로 광양읍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며, 백운산과 서산에서 생성되는 찬 공기가 서천과 연결되면서 찬 공기를 도심권

로 빠르게 확산하는데 적지로 선정됐다.

아울러 연결 숲은 동천 유흥지 일원으로, 도시개발사업(복성지구)과 동천 사이에 발생하는 유흥지(사면)를 성토해 선형의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찬 공기 이동통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열환경이 매우 취약한 중마동권은 연결 숲 2개소와 디딤·확산 숲 4개소로 총 6개소를 조성한다. 연결 숲 대상지는 찬 공기 생성 숲인 가야산 공기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중마중앙로와 구봉산·성황천의 찬 공기를 도심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성황천 주변 녹지 공간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연결 숲을 통해 유입된 찬 공기를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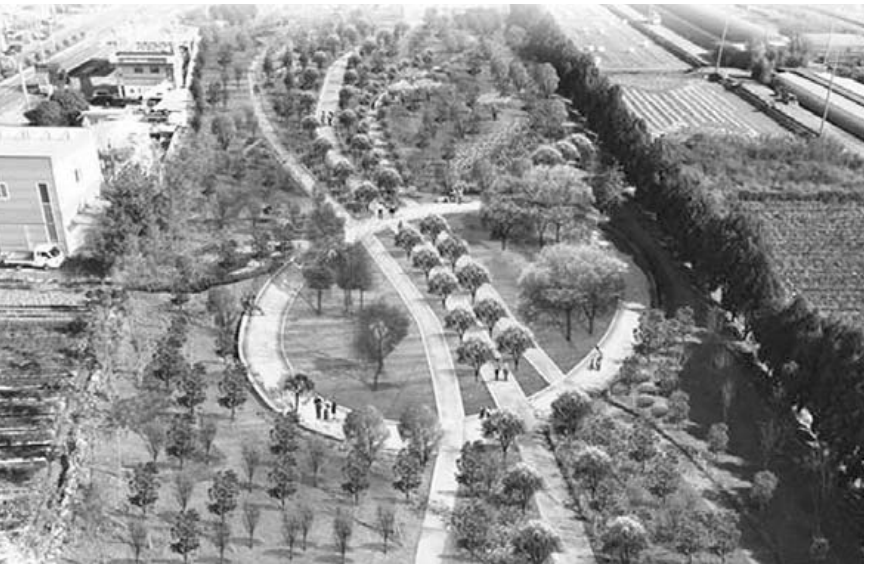
광양시가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는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도시바람길 숲 사업 대상지인 중마중앙로(왼쪽), 도립미술관 옆(오른쪽). <광양시 제공>

심권으로 확산하고, 소규모 찬 공기를 생성하기 위한 대면적의 마동근린공원, 와우공원(2개소), 눈소공원, 마동생태공원을 선정해 시민들이 쾌적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5개소(약 60억원)는 발주 완

료했으며, 3개소는 용역 추진 중으로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인화 시장은 "산림의 차고 신선한 바람이 도심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기후 변화에 체계적



광양시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는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도시바람길 숲 사업 대상지인 중마중앙로(왼쪽), 도립미술관 옆(오른쪽). <광양시 제공>

으로 대응해 도시와 시민을 살리는 생감 및 도시숲은 미세먼지가 25.6% 저감되고 초미세먼지가 40.9%를 저감한다.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를 2.5t 흡수하고 1.8t의 산소를 방출해 대기정화 기능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도시 숲은 기온을 3~7℃ 낮추고 습도를 9~23% 높여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

고, 대규모 도시 숲은 미세먼지가 25.6% 저감되고 초미세먼지가 40.9%를 저감한다.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를 2.5t 흡수하고 1.8t의 산소를 방출해 대기정화 기능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양홍철기자

여수 문화플랫폼 '생활문화센터' 내달 운영

오늘 개관식...시민 문화활동 위한 연습실·스튜디오 등 갖춰

여수시는 20일 "시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생활문화센터'(사진)가 21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생활문화센터'는 지난 2019년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7억원 등 총 61억원을 들여 쌍봉동 옛 향토유물전시관 부지 내 건립했으며 연면적 1천67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센터 내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연습실 ▲동아리실 ▲음악 녹음·영상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실 ▲프로그램 및 학습실 ▲다목적홀 등이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평일(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토)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실별 사용료는 시간 당 3~7천원으로 저렴한 그간 연습 공간, 강의·토론 장소 등이 부족해 원활한 문화활동이 어

려왔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줄 것으로 보인다.

실별 대관(일부공간 제외)은 21일 개관 후 신청을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시는 센터 내 생활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다음달 한 달간은 무료로 드림과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문의 생활문화센터 061-659-2420-2421)

여수시 관계자는 "생활문화센터가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해 평범한 일상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플랫폼으로서 지역 문화의 거점공간이자 주민들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화순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30만원 이상·60일 경과 대상

화순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번호판 영치단속에 앞서 약 1개월 간 차량 과태료 체납자를 포함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영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이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번호판이 뜯기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뜯긴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상실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군민이 준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곡성군, 귀농귀촌 전원생활 체험교육 성료

도시민 9가구 18명 대상...성공적인 농촌 정착 사례 견학

곡성군은 "지난 16-18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9가구 18명을 대상으로 2박3일 간 전원생활 체험교육(사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은 곡성군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선배 귀농귀촌인의 집에서 함께 숙박하며 농촌을 이해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가자들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등을 견학해 최신 농업 기술과 농산물 가공 방식을 직접 보고 배웠고 축산, 과수, 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농가를 방문해

농사를 체험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품방마켓을 탐방하며 지역 내 문화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다.

체험교육을 마친 참가자는 "2박3

일 동안 곡성의 푸근한 인심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마음껏 느끼고 간다"며 "그저 막연했던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니 귀농귀촌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호선기자



서산란 순천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촉구

서산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 사진)은 "최근 열린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의의이기 이전에 가정주부로서 사람들이 수산물을 기피하고 소금 사재기를 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불안감이 잠이 안 올 정도"라며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우리

몸의 DNA를 변형시키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인 트리튬은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며 "이는 어업과 수산업의 쇠퇴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만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인근 지자체와 시민 확산 운동이 절실히 요구돼 단계적인 대응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정부는 물론 시와 의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남겨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정기기자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 '지역 활력' 논의

고흥군, 역사문화공원·거금휴게소 등 추진상황 점검

고흥군이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를 열어 지역 활력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날 고흥읍 역사문화공원 조성 현장과 금산면 거금휴게소에서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간부회의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부시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공원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거금휴게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역사문화공원에서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 현장시찰, 역사문화공원과 고흥전통시장을 연계한 고흥읍 활력 제고 방안, 준공식 준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8년 3월 고흥군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사 자리에 조성 중이었던 역사문화공원이 5년 만에 준공을 앞

두고 있어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군은 오랜 기다림 끝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된 만큼, 시설물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고흥읍역사문화공원은 조선시대 흥양현의 동헌건물인 존심당과 아문, 담장 등 문화유산을 활용해 군민휴식 공간과 고

흥의 역사를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어서 찾은 거금휴게소에서는 황금빛 거금대교와 고흥바다의 수려한 풍경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휴게소 내 루프탑 카페 조성과 거금·녹동권역 관광자원 집적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영민 군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유발·충족시키기 위해 군이 보유한 역사·문화·관광 자원들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자원 연계·집적화 방안을 공직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자"고 주문했다. /고흥=최복환 기자

담양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9월까지 특별 정리기간...생계형 체납자엔 처분 유예

담양군은 "오는 9월까지를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조용상 재무과장 주재로 읍·면 세무, 민원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

정을 회피하는 상습적인 체납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주민세·재산세 등 소액 체납분도 적극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군은 정리목표액 12억7천만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읍·면별 지방세 체납자 전담 인력을 지정해 실효성 있는 체납자 실태조사 및 중점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 /담양=정승균 기자

특히 6월 중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집중 운영하고 야간·주말 영치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인플레이션 역제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미자 징수팀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한편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